

미국 대선외의 미중 및 한중 경제 영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4. 10. 31(목)

1. 미국의 대중 수입 동향

□ 2019년부터 미국의 무역적자는 증가 추세인 반면,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은 감소

* 트럼프 재임기간 : 2017. 1월 ~ 2021.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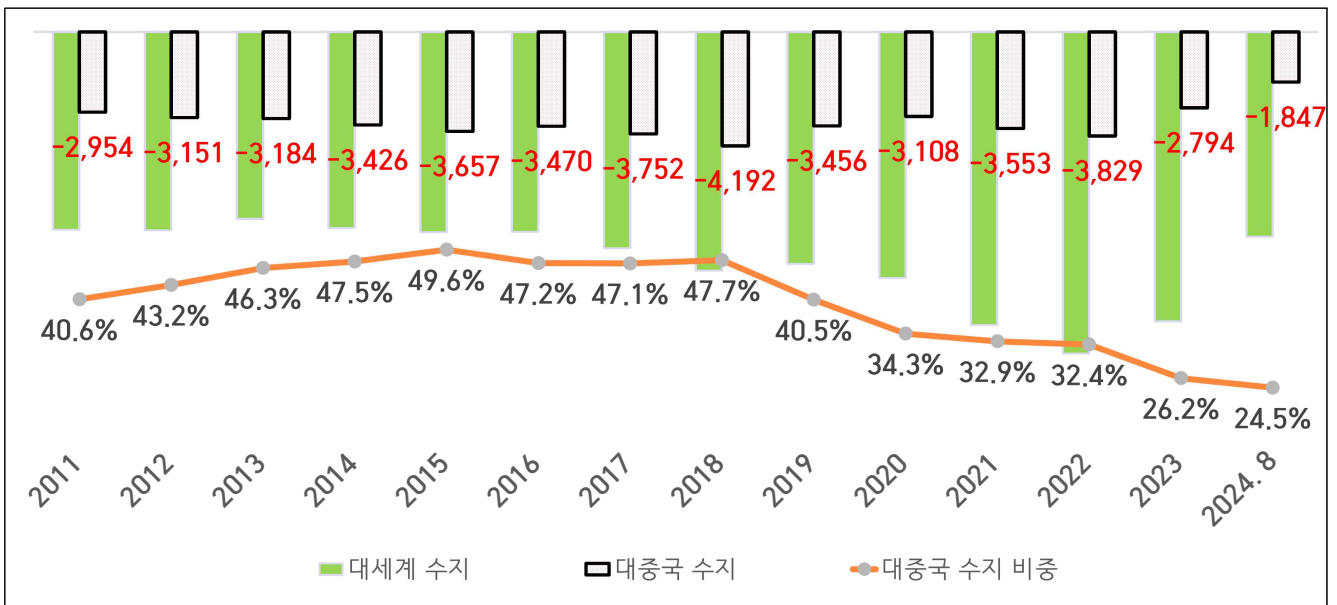
□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등이며, 대한국 무역적자는 최근 증가

* 미국 적자국 내 한국순위 : 7위(15년) → 12위(20년) → 8위(23년, 24. 8월)

□ 미국의 대중국 주요 적자(수입)품목은 PC 및 부품, 스마트폰, 완구 등 소비재와 리튬이온 배터리, 데이터 장비 등 중간재

*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컴퓨터 부품, 반도체 저장장치 등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금액 및 총 적자금액 대비 비중(단위 : 억 달러, %)>



<미국의 주요 적자국 및 금액(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년		2020년		2024년 8월	
1	중국	-3,657	중국	-3,108	중국	-1,847
2	독일	-742	멕시코	-1,127	멕시코	-1,090
3	일본	-687	베트남	-697	베트남	-776
4	멕시코	-584	독일	-573	독일	-572
5	베트남	-309	스위스	-567	아일랜드	-527
6	아일랜드	-304	아일랜드	-559	대만	-473
7	한국	-283	일본	-554	일본	-448
8	이탈리아	-278	말레이	-317	한국	-445
9	인도	-232	대만	-299	캐나다	-393
10	말레이	-215	이탈리아	-295	이탈리아	-306
	총계	-7,371	총계	-9,052	총계	-7,535

<미국의 대중 적자품목 및 금액(단위 : 억 달러)>

구분	2024년 8월	금액
1	업무용 및 가정용 데스크탑	-213
2	스마트폰	-210
3	리튬이온 배터리	-93
4	기타 완구, 게임용품 및 오락용품	-74
5	데이터 수신/변환/송신/재생 장비	-48
6	컴퓨터의 부품과 부속품	-39
7	컴퓨터 모니터	-33
8	기타 플라스틱 제품	-23
9	비디오 게임 콘솔 및 게임기	-23
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23
	총 계	-1,847

<2024년 8월 미국의 대한민국 및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및 금액(단위 : 억 달러)>

No.	HS	대한국 수입 품목	금액	HS	대중국 수입품목	금액
1	870323	내연기관 승용차 (1500~3000cc)	71	847130	업무용 및 가정용 데스크탑	215
2	870322	내연기관 승용차 (1000~1500cc)	62	851713	스마트폰	212
3	870324	내연기관 승용차 (3000cc 이상)	47	850760	리튬이온 배터리	94
4	870340	하이브리드 차량	39	950300	기타 완구, 게임용품 및 오락용품	74
5	847330	컴퓨터의 부품과 부속품	38	851762	데이터의 수신, 변환, 송신 또는 재생 장비	51
6	870380	전기차	37	847330	컴퓨터의 부품과 부속품	43
7	852351	반도체 저장 장치(SSD)	29	300490	기타 의약품	36
8	271019	정제된 석유 제품 및 기타 비휘발성 석유 오일	22	852852	컴퓨터 모니터	33
9	300214	향체를 포함하는 단일 세포 균주	19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27
10	382499	화학 제품, 화합물 첨가제	13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23
11	841810	가정용 냉장고	12	9504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23
12	847989	특정 기능을 가진 기계 및 기계적 장치	12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	21
13	870829	차량용 기타 부품과 액세서리 (창문 등)	11	630790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	21
14	271012	경질유(light oils) 및 석유제품	10	940320	금속 가구	18
15	870899	차량의 기타 부품과 액세서리 (미분류 부품)	9	640299	고무 및 플라스틱제 신발	18
16	300215	특정 혈청 및 면역 제품.	8	850440	정지형 변환기	18
17	330499	기타 화장품 및 미용 제품	8	392490	기타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17
		총 계	891.0		총 계	2,791

2. 중국 내 언론 동향

□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

- 양당 모두 대중국 정책에 공통된 인식 보유...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무역과 투자 분야 제한으로 첨단산업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 유지 희망(신랑재경 등)

□ 트럼프 당선 시 고관세 부과 영향

- 해외수요와 공급망 안정은 중국경제 성장 관건...트럼프의 고관세는 내수, 투자 부진 속 수출에 의존한 중국경제 회복에 악영향...과거 경험상 관세부과 1~2개월 내 대미 수출 제한 뚜렷(취진재경 등)
- 트럼프의 60% 관세부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중국상품 대체 불가 등 제약...미중 경제관계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트럼프 당선 시 충격이 과거에 비해 약할 것...과거 미국은 중국에 3차례 관세 부과하여 중국산 수입은 감소, 아세안, 멕시코, 한국 등의 수입 증가(제일재경 등)
 - * 관세분야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큰 입장 차이, 해리스는 관세 유지하며 핵심산업에 주목,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 부담 가중시킨다고 주장
 - * 과거 추가 관세부과 상품 중 17%(리튬배터리, 소형가전 등)는 미국, 글로벌 수출 비중 상승, 44.7% 상품(차량, 부품 등)은 미국 수출비중 하락, 글로벌 수출비중 상승, 36.7%의 상품(노트북/신발 등)은 미국, 글로벌 수출 비중 하락

□ 트럼프 당선, 중국제품의 대미 우회 수출 조치 등에 대비

- 트럼프 당선에 대비 경제문제 등에 대해 협상가능성 모색...트럼프 당선 시 재정지출 확대될 수도...관세전쟁 대응준비 필요...미중 관계 악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국 자체 기술 발전에 속도(시나경제 등)
-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한 중국의 상장 자동차 회사는 20개 이상으로 미국 외 다른 시장을 개척 필요(매일경제망)
 - * 모 자동차기업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 목적은 남미시장에 진출이고 당분간 미국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힘
 - * 모 타이어기업 관계자는 멕시코 외 베트남, 캄보디아에 공장을 건설했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건설 중으로 고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미국 대선후보별 통상 및 대중국 관련 주요 전략(공약)

□ (공통) 대중국 견제 및 압박 강화, 미국 우선주의 및 미국내 투자 확대, 첨단산업 보호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 (해리스) 다자주의, 표적관세/비관세 장벽(인권, 환경), 동맹국과 공동협력, CHIPS/IRA 유지/확대, 탈탄소/그린전환 지속, 대중 관계 현상유지

○ (트럼프) 양자(상호)주의, 보편/고관세(무역적자 해소),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 CHIPS/IRA 축소/폐지, 전통제조업 부활, 대중 압박 강화(협력 가능성 상존)

〈해리스와 트럼프의 통상 및 대중국 관련 전략(공약) 비교〉

구분	해리스	트럼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견제 및 압박 심화 -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미국 투자(리쇼어링, 온쇼어링) 강화 -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보호 	
통상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양프레임워크(IPEF) * 노동, 친환경 요건 강화 - 메스 : 표적관세(전략산업) + 비관세장벽(인권, 환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주의(관세) : MFN은 비대칭/불공정, 개별국별 상응관세(상호무역법) - 해머 : 보편관세 10~20%(중국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등 실현가능성 미지수 * 무역적자 해소 위해 주요 적자국(베트남/멕시코/한국 등) 통상조치
공급망 및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동맹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파트너와 경제안보 협력 * USMCA 재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우선주의/보호주의 강화 * FTA 재협상(한미, USMCA 등)
기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IRA 유지/확대 - 법인세 인상(21→28%), 고소득자 증세 - 탈탄소, 그린전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유지(미정), IRA 축소(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이 와서 공장을 설립” - 법인세 인하(21→15~20%), 규제완화 - 전통제조업(화석연료) 부활, 전기차 퇴보
대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리스킹 : 공급망 분리보다 위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조직적(동맹) 압박 * 중국과의 관계 현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커플링 : 광범위한 중국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압박 심화(충돌 격화 또는 협력 가능성)

4. 평가 및 영향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압박 강화

- 양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필요성과 의지 표명, 압박 방식과 정도의 차이 존재
 - (해리스) 전략산업 대상 표적 관세 및 비관세장벽(환경/노동) 활용, 동맹국과 협력하여 체계적·조직적·점진적 압박, 현재의 미중 관계 지속
 - * 최근 대중국 투자제한 규칙 발표 및 시행(2025. 1) 등 대중 압박 점진적 강화
 - (트럼프) 무역적자 축소 노력(대중국 고관세 부과*, 중국의 수입 확대 요구), 일대일 협상, 대중 압박 심화(충돌 격화 또는 협력 가능성 상존)
 - * 트럼프는 자칭 “관세맨(Tariff Man)”,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등 언급
 - * 주요 적자품목이 소비재(PC, 스마트폰, 완구)로 체감물가 상승 우려 등 감안시 고관세 부과 실현 의문 제기,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비교적 용이

□ 탈중국 공급망 재편 확대(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 양 후보 모두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예고
 - * 트럼프는 취임 후 USMCA 재협상, 멕시코산 중국차에 100~200% 관세 언급
 - * 바이든행정부는 USMCA 이행상황 점검시 멕시코산 중국차 문제 논의 언급
- 특히, 트럼프는 중국 뿐 아니라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우려도 표명, 멕시코, 베트남 등에 대한 통상 조치 가능성
 - * 중국 뿐 아니라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 등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점검 필요

□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중국의 추격 지연, 미국시장 안정적 확보 등 반사이익

-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기술의 발전 및 추격 속도 지연,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의 미국시장 안정적 확보·유지
 - * 2024. 9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399억불)와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249억불)는 우리의 전체 무역흑자(368억불)의 각각 108.4%, 67.7% 차지

□ 글로벌 및 중국 경제 하락 악영향, 미국 외 시장 경쟁 치열

- 경제효율 보다는 안보(안정) 중심의 공급망/무역망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배제 확대 등 세계 및 중국의 경제무역 위축으로 우리 수출 경제에 불리
 - 특히, 트럼프 당선시 미국 우선주의 강화, 보편관세 부과 등으로 전세계 무역 감소 및 제조업 경기 악화 심화 우려
 - * 트럼프의 고관세정책으로 전세계 GDP 0.8%(2025년), 1.3%(2026년) 감소 전망(IMF), 미국과 중국/EU 등 상호 보복관세로 글로벌 무역 위축
- 미국시장이 막힌 중국 기업(제품)들의 저가 공세 및 EU, 아세안 등 대체시장에서 중국 기업(제품)과의 경쟁 치열
 - *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 물량이 유럽, 아시아 등으로 덤핑 판매될 가능성

□ 중국과의 협업관계 악화 및 중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의 미국산 대체 우려

-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압박에 한국의 동참 요구 강화 가능성, 제조기지/원부자재 공급처 등으로서 중국과의 협업 어려움 확대
 - *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미 수출 악영향
(중국 생산 반도체, 배터리, 철강의 대미 수출물량은 거의 없음)
 - * 2023년 대중 수입 중 중간재 비중 67.3%
-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요구시 중국시장에서 미국산의 한국산 제품 대체 가능성

□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중국의 반발 대비, 새로운 대중 협업관계 구축 등

- 중국의 예상 보복조치(희토류 등 수출통제, 보복관세 등)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강구
- 탈중국 보다 중국 활용방안 고민 필요
 - * 시장중심 접근(세계공장 탈피, 마켓쇼어링), 서비스(관광, 문화) 교류, 투자 확대
- 미국, 중국의 압박에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협상력 제고 및 공동 대응

<중국의 대한민국 및 대미국 주요 수입품(2024년 8월, 단위 : 억 달러)>

No.	HS	대한국 수입품목	금액	HS	대미국 수입품목	금액
1	854232	메모리 모듈	304	120190	기타 대두	74
2	854231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157	271112	프로판 (액화)	72
3	854239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62	854231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55
4	852990	디스플레이, TV 송신기 등의 기타 부품	42	870323	내연기관 승용차(1500~3000cc)	46
5	847330	컴퓨터 부품	30	270900	석유와 역청유	39
6	290243	파라-자일렌 (p-Xylene)	26	880240	항공기의 기타 부품	37
7	854233	증폭기 (amplifier) 디바이스	20	84119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부품	26
8	284290	기타 무기산염	15	740400	구리 스크랩 (재생 구리)	24
9	852412	OLED 모듈	13	848620	반도체 제조용 장비	22
10	290220	벤젠	12	841112	터보제트 엔진	18
11	330499	기타 화장품 및 미용 제품	12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17
12	852411	LCD 모듈	12	520100	면, 가공하지 않은 것	17
13	851762	송수신용 기기	11	271111	천연가스	15
14	271012	경질유와 조제품(휘발유 등)	10	100790	기타 수수	14
15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10	854239	기타 집적회로	14
16	847170	저장장치 (HDD, DVD 등)	10	270112	유연탄	11
17	848620	반도체 제조용 장비	10	300215	면역 물품	11
18	290121	에틸렌	8	300490	기타 의약품	11
19	290122	프로필렌	8	382219	기타 조제시약	11
20	382499	기타 조제 점결제	8	330499	기타 화장품 및 미용 제품	10